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SEONG-JIN CHO PIANO RECITAL

주최 예술의전당 Seoul Arts Center CREDIA MUSIC & ARTISTS 후원 GENESIS

HERMÈS
PARIS
the saddler's spirit
PARIS
HERMÈS PARIS
Publicis EtNous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SEONG-JIN CHO PIANO RECITAL

2020.11.04 WED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20.11.4 (수) 오후 3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피아노 | 조성진

슈만

(독일 1810 - 1856)

숲의 정경 Op. 82

숲의 입구
잠복 중인 사냥꾼
고독한 꽃
저주받은 장소
기분 좋은 풍경
여인숙에서
예언의 새
사냥의 노래
이별

CREDIA

시마노프스키

(폴란드 1882 - 1937)

마스크 Op. 34

셰헤라자드
광대 탄트리스
돈 쥬앙의 세레나데

슈베르트

(오스트리아 1797 - 1828)

'방랑자' 환상곡 C장조 D. 760

정열적으로 빠르게, 그러나 지나치지 않게
느리게
매우 빠르게
빠르게

· 본 공연은 중간휴식 없이 65분간 진행됩니다.
·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3PM, Wednesday, November 4, 2020 at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Seong-Jin Cho, Pianist

R. Schumann

(Germany 1810 - 1856)

Waldszenen, Op. 82

Eintritt
Jäger auf der Lauer
Einsame Blumen
Verrufene Stelle
Freundliche Landschaft
Herberge
Vogel als Prophet
Jagdlied
Abschied

CREDIA

K. Szymanowski

(Poland 1882 - 1937)

Masques, Op. 34

Scheherazade
Tantris le Bouffon
Eine Don Juan-Serenade

F. Schubert

(Austria 1797 - 1828)

'Wanderer' Fantasie in C Major, D. 760

Allegro con Fuoco ma non troppo
Adagio
Presto
Allegro

· Please note that tonight's concert will be approximately 65 minutes in duration, without an interval.
·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onic devices.
·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2020.11.4 (수) 오후 3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 위 뜨거운 호흡과 그보다 더 뜨거운 박수소리가 그리운 가을이다. 피아니스트 홀로 거대한 검은색 악기에 옆으로 앉아 온갖 드라마를 그려내는 피아노 독주는 그 어떤 공연보다도 짜릿한 엑스타시를 제공해 주지만, 정작 연주하는 모습이나 표정, 동작 등을 따져 보면 어지간한 악기 연주보다 청중들에게 어필하기에 제약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살롱 같은 공간이라면 모를까, 가까이 앉은 청중들을 제외하면 미세하게 움직이는 연주자의 움직임 속 심리를 알아차리긴 힘들다. 거기에 보면대를 올리거나 고개를 숙이고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를 만나면 마치 악기 속에 숨는 듯 보일 때도 있다. 연주 도중 청중들과 눈을 마주칠 일도 거의 없는 피아니스트의 무대 위 매너 중 눈에 띄는 것이라면 악상이 열기를 띠어감에 따라 점점 상기돼 가는 옆얼굴, 특별히 강한 악센트가 필요할 때 치솟는 팔의 진동, 와일드한 모우션을 지향하는 일부 피아니스트들의 허리와 상체 움직임 등이 전부일 것이다.

동작의 경중과 상관없이 청중들이 인상 깊게 기억하는 피아니스트의 자세 중 하나가, 고요한 어느 순간 고개를 들어 허공을 바라볼 때가 아닐까 싶다. 모두 그 순간 피아니스트가 어떤 생각일지 궁금해하지만, 나 자신도 가끔 하는 이 동작에 매번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지는 않다. 단순히 물리적인 릴랙스이거나, 진행되는 음악의 파우제가 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때때로는 비어있는 음악회장의 저 높은 곳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소리를 작곡가가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을지 궁금해하거나, 만들어낸 '그'와 이를 재현하는 '내'가 같은 판타지로 공유하기를 바라기도 한다. 연주 도중 조성진이 응시할 허공은 어떤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로 채워져 있을지 기대된다.

슈만
숲의 정경 Op. 82

산책하는 것을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았던 베토벤의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유럽인들에게 숲은 즐겁게 거니는 곳이든 신비스러운 스토리가 존재하는 곳이든 상관없이 일상의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내면과 소통하는 것에도 수없는 갈등을 빚었던 슈만에게 숲은 어쩌면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던 마음속 번민을 털어놓을 수 있던 대상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전제를 하고 보면 1849년에 완성된 '숲의 정경' 9곡에 숨어있는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스러운 정서가 조금 이해된다. 부드럽고 편안한 흐름 속 드리우는 어두운 그림자가 매력 있는 이유는 작곡가의 영혼 속 아픔이 들어있어서가 아닐까.

1곡 숲의 입구 - 단순히 '도입'의 의미 외에 이곳을 들어서려는 사람의 막연한 기대와 두근거림을 적절히 묘사했다.

2곡 잠복 중인 사냥꾼 - 사냥꾼의 웅크린 모습을 그리고 있으나 셋잇단음표로 나타나는 정서는 낙천적이다.

3곡 고독한 꽃 - 대위 기법을 통해 꽃 넝쿨이 엉킨 것 같은 효과를 내는 부분이 훌륭하다. 감상적이지 않고 개운하고 깔끔한 정서가 넘치고 있다.

4곡 저주받은 장소 - 시인 프리드리히 헵벨의 서사시를 영감으로 했으며, 인간의 피를 빨아들인 꽃의 붉은 색을 그로테스크한 불협화음으로 그린다.

5곡 기분 좋은 풍경 - 짧고 가벼우며 즐거운 기분을 그리고 있어 전곡 가운데 가장 밝다. 빠른 4분의 2박자가 흥겹다.

6곡 여인숙에서 - 모데라토의 템포로 편안한 멘델스존의 무언가 풍이다. 구성 역시 3부 형식으로 되어 있어 논리적인 느낌도 든다.

7곡 예언의 새 - 전곡 중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인상적인 리듬의 모티브를 통해 음산하면서도 센티멘탈의 정서가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교묘하게 나타난다.

8곡 사냥의 노래 - 전형적인 슈만의 흥겨운 사냥 노래로, 같은 조성의 '환상곡' 2악장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중간부는 A 플랫 장조로 되어있다.

9곡 이별 - 숲을 떠나는 사람의 편안한 마음과 미련 섞인 생각들이 '빠르지 않게'라는 지시어와 함께 표현된다. 더 이상의 어두움은 느껴지지 않는다.

CREDIA

시마노프스키
마스크 Op. 34

20세기 초 폴란드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으며, 국제적으로도 깊은 영향력을 지닌 작품을 여럿 발표했다고 해서, 카롤 시마노프스키를 폴란드의 정신을 민족 음악으로 고취시킨 쇼팽의 직계 후예라는 '부담스러운' 위치에 올려놓을 필요는 없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서야 정부가 수립된 폴란드의 비극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크라이나 티모쇼프카에서 태어난 시마노프스키의 생애의 전반이 많은 여행으로 채워진 것은 결과적으로 그의 음악혼을 일깨워주었다. 북미 지역은 물론이고 지중해를 거쳐 무슬림 지역까지 섭렵한 후 받은 문화적 자극은 시마노프스키의 작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피아노를 위한 세 개의 시'라는 부제가 붙은 '마스크'는 1915년에서 이듬해에 걸쳐 만들어졌으며, 비슷한 분위기의 전작 '메토프'보다 은유적이고 현학적인 표현이 두드러진다. 조국의 독립이 이루어지기 직전 작품들의 특징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이 소품들은 도발적인 화성과 적나라한 무조, 변덕스러운 리듬과 예측 불허의 뉘앙스가 전면에 나타난다. 어딘지 비틀어진 무곡의 편린과 해학, 작품 전반을 꿰뚫는 비극적 정서와 신비감은 스크랴빈, 스트라빈스키를 연상시키며, 남유럽의 분위기와 유희적인 음향은 드뷔시의 전주곡집,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 등을 떠올리게도 한다. 1곡 '셰헤라자드'는 그로테스크한 음향과 곳곳에 숨어있는 싱코페이션을 통해 이야기의 화자인 셰헤라자드가 무희임을 비유하며, 아치 형의 구조 중간부의 꿈꾸는 듯한 분위기에서는 전작인 '메토프'의 마지막 곡 '나우시카'의 그림자가 살짝 비친다. 2곡 '광대 탄트리스'는 에른스트 하르트의 동명의 연극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광대로 변한 트리스탄의 이야기다. 여기에서 트리스탄은 마르크 왕에게서 이졸데를 빼앗아 올 수 있다는 망상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피아노의 우스꽝스러운 리듬과 충동적인 악센트들이 그 무모함을 비웃고 슬픔을 다독인다. 3곡 '돈 쥬앙의 세레나데'는 드뷔시와 라벨을 거친 스페인적 요소들이 다시 동유럽의 필터를 거쳐 나타나는 흥미로운 캐리커처다. 절뚝이는 셋잇단음표는 분명 라틴의 노래와 춤이고, 달콤한 감상을 파괴하는 불규칙한 프레이징과 타악기적 음향은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셰헤라자드의 머릿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슈베르트
'방랑자' 환상곡 C장조 D. 760

음악대학 피아노 전공 커리큘럼에는 오래된 논쟁거리들이 몇 있지만, 그중에도 슈베르트의 이 독보적인 환상곡이 가장 결론 내리기 어려운 문제를 지니고 있다. 과연 이 곡은 소나타인가, 아니면 제목 그대로 환상곡인가? 학생들에게 레퍼토리를 추천할 때 어떤 카테고리에 넣어야 하는가? 네 개의 부분으로 나뉜 섹션이 이어져 있고 온전한 소나타 형식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을 보면 분명 자유로운 환상곡의 형태이지만, 앞뒤의 알레그로 악장과 안쪽에 배치된 느린 악장(변주)에 이어지는 스케르초의 구성은 슈베르트가 구상했던 매우 개성적인 소나타의 한 곡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그의 즉흥곡 8곡(D. 899, D. 935) 역시 비슷한 평가를 받는다. 특히 첫 곡이 소나타 형식의 얼개를 갖춘 D. 935의 경우 소나타로 구상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는데, 혹자는 극음악 '로자문데' 선율에 의한 대규모 변주곡인 세 번째 곡 때문에 그 의구심에 의미가 없다고도 한다. 아무렴 어떠랴. 끝 간 데 없이 뻗어나던 자유로운 시상의 천재가 지닌 세계는 그 틀(작품명)이 어떤 것이든 빛난다. 알레그로 콘 푸오코 마 논 트로포의 1곡은 씩씩함과 역동성이 넘치는 리듬의 주제로 시작하며, E장조로 제시되는 2주제 역시 리듬 면에서는 같은 뿌리를 지닌다. 어정쩡한 변주 형태와 소나타 형식의 모양을 띤 1곡은 주제와 5개의 변주를 갖춘 2곡으로 넘어가는데, 유명한 주제는 가곡 '방랑자'(Der Wanderer)의 중간부에서 가져온 것이다. 어지러운 전조와 장식 음형들이 클라이맥스를 이룬 후 해결되지 않은 상태의 조성은 A플랫 장조로 바뀌어 3곡으로 들어간다. 프레스토의 빠른 스케르초는 D플랫 장조로 되어있는 트리오를 거쳐 비르투오소적 전개를 보이며 작품 전체의 으뜸 조성인 C장조를 찾아 마지막 4곡에 돌입한다. 1곡과 같은 리듬의 주제는 잠시 대위법적 전개를 예상케 하나 금세 비르투오소적 색채를 더해 화려한 피날레를 꾸민다. 마지막 섹션의 마무리는 1곡에서 시작된 자유로운 소나타 형식의 거대한 코다로 느껴지기도 한다.

글 | 김주영 (피아니스트)

2020.11.4 (수)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피아노 | 조성진

슈만

(독일 1810 - 1856)

유모레스크 Op. 20

단순하게
바쁘게
단순하고 부드럽게
친밀하게
매우 활발하게
약간 화려하게
마지막으로

CREDIA

시마노프스키

(폴란드 1882 - 1937)

마스크 Op. 34

셰헤라자드
광대 탄트리스
돈 쥬앙의 세레나데

- 중간휴식 -

리스트

(헝가리 1811 - 1886)

피아노 소나타 b단조 S. 178

·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구입문의 및 고객센터 080-700-8000 ■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2.0T-GDI 2WD 18인치알루미늄휠(복합10.5km/ℓ도심9.2km/ℓ, 고속도로12.4km/ℓ) I CO₂배출량162g/km I 배기량1,998cc I 공차중량1,605kg I 자동변속기등급 ▶ 2.0T-GDI 2WD 18인치타이어(복합10.7km/ℓ도심9.5km/ℓ, 고속도로 12.5km/ℓ) I CO₂배출량158g/km I 배기량1,998cc I 공차중량1,605kg I 자동변속기등급 ▶ 2.0T-GDI AWD 18인치알루미늄휠(복합9.7km/ℓ도심8.4km/ℓ, 고속도로11.7km/ℓ) I CO₂배출량174g/km I 배기량1,998cc I 공차중량1,670kg I 자동변속기등급 ▶ 2.0T-GDI AWD 18인치타이어(복합9.9km/ℓ도심8.7km/ℓ, 고속도로11.8km/ℓ) I CO₂배출량172g/km I 배기량1,998cc I 공차중량1,670kg I 자동변속기등급 ▶ 2.0T-GDI 2WD 19인치알루미늄휠(복합10.4km/ℓ도심9.0km/ℓ, 고속도로12.6km/ℓ) I CO₂배출량149g/km I 배기량1,998cc I 공차중량1,620kg I 자동변속기등급 ▶ 2.0T-GDI 2WD 19인치알루미늄휠(10.5km/ℓ도심9.3km/ℓ, 고속도로12.3km/ℓ) I CO₂배출량162g/km I 배기량1,998cc I 공차중량1,620kg I 자동변속기등급 ▶ 2.0T-GDI AWD 19인치알루미늄휠(복합9.3km/ℓ도심8.1km/ℓ, 고속도로11.2km/ℓ) I CO₂배출량184g/km I 배기량1,998cc I 공차중량1,685kg I 자동변속기등급 ▶ 2.0T-GDI AWD 19인치알루미늄휠(복합9.4km/ℓ도심8.2km/ℓ, 고속도로11.5km/ℓ) I CO₂배출량180g/km I 배기량1,998cc I 공차중량1,685kg I 자동변속기등급 ▶ 3.3T-GDI AWD 19인치알루미늄휠(복합8.5km/ℓ도심7.4km/ℓ, 고속도로10.3km/ℓ) I CO₂배출량203g/km I 배기량3,342cc I 공차중량1,790kg I 자동변속기등급 ▶ 3.3T-GDI AWD 19인치알루미늄휠(복합8.6km/ℓ도심7.5km/ℓ, 고속도로10.8km/ℓ) I CO₂배출량193g/km I 배기량3,342cc I 공차중량1,790kg I 자동변속기등급 ▶ 3.3T-GDI 2WD 19인치알루미늄휠(복합9.1km/ℓ도심8.0km/ℓ, 고속도로10.8km/ℓ) I CO₂배출량185g/km I 배기량3,342cc I 공차중량1,770kg I 자동변속기등급 ▶ 3.3T-GDI 2WD 19인치알루미늄휠(복합9.4km/ℓ도심8.2km/ℓ, 고속도로11.3km/ℓ) I CO₂배출량182g/km I 배기량3,342cc I 공차중량1,770kg I 자동변속기등급 ▶ 2.2디젤 2WD_17인치알루미늄휠(복합14.7km/ℓ도심13.1km/ℓ, 고속도로17.3km/ℓ) I CO₂배출량129g/km I 배기량2,199cc I 공차중량1,704kg I 자동변속기등급 ▶ 2.2디젤 2WD_17인치타이어(복합14.8km/ℓ도심13.3km/ℓ, 고속도로17.4km/ℓ) I CO₂배출량127g/km I 배기량2,199cc I 공차중량 1,704kg I 자동변속기등급 ▶ 2.2디젤 2WD_18/19인치타이어(복합13.4km/ℓ도심12.0km/ℓ, 고속도로16.2km/ℓ) I CO₂배출량134g/km I 배기량2,199cc I 공차중량1,739kg I 자동변속기등급 ▶ 2.2디젤 AWD_17인치타이어(복합13.3km/ℓ도심11.9km/ℓ, 고속도로15.6km/ℓ) I CO₂배출량144g/km I 배기량2,199cc I 공차중량1,779kg I 자동변속기등급 ▶ 2.2디젤 AWD_18/19인치타이어(복합13.1km/ℓ도심11.7km/ℓ, 고속도로15.2km/ℓ) I CO₂배출량146g/km I 배기량2,199cc I 공차중량1,800kg I 자동변속기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품명, 상기사 및 상품들을 빠지 않습니다 ※ 정속주행을 합니다 ■ 제네시스는지점/대리점/카마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판매이는 오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비판 거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7:30PM, Wednesday, November 4, 2020 at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Seong-Jin Cho, Pianist

R. Schumann

(Germany 1810 - 1856)

Humoreske, Op. 20

Einfach
Hastig
Einfach und zart
Innig
Sehr lebhaft
Mit einigem Pomp
Zum Beschluß

CREDIA

K. Szymanowski

(Poland 1882 - 1937)

Masques, Op. 34

Scheherazade
Tantris le Bouffon
Eine Don Juan-Serenade

- Intermission -

F. Liszt

(Hungary 1811 - 1886)

Piano Sonata in b minor, S. 178

·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onic devices.
·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BORN TO MOVE.

THE NEW GENESIS G70

움직임, 그것은 우리의 DNA.

GENESIS

GENESIS

■ 구입문의 및 고객센터 080-700-8000 ■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2.0T-GDI 2WD 18인치알루민늄)복합10.5km/ℓ(도심9.2km/ℓ, 고속도로12.4km/ℓ) | CO2배출량162g/km | 배기량1,998cc | 공차중량1,605kg | 자동변속기등급 ▶ 2.0T-GDI 2WD 18인치타이어 복합10.7km/ℓ(도심9.5km/ℓ, 고속도로: 12.5km/ℓ) | CO2배출량158g/km | 배기량1,998cc | 공차중량1,605kg | 자동변속기등급 ▶ 2.0T-GDI AWD 18인치알루민늄) 복합9.7km/ℓ(도심8.4km/ℓ, 고속도로:11.7km/ℓ) | CO2배출량176g/km | 배기량1,998cc | 공차중량1,670kg | 자동변속기등급 ▶ 2.0T-GDI AWD 18인치타이어) 복합9.9km/ℓ(도심8.7km/ℓ, 고속도로:11.8km/ℓ) | CO2배출량172g/km | 배기량1,998cc | 공차중량1,670kg | 자동변속기등급 ▶ 2.0T-GDI 2WD 19인치알루민늄) 복합10.4km/ℓ(도심9.0km/ℓ, 고속도로12.0km/ℓ) | CO2배출량160g/km | 배기량1,998cc | 공차중량1,620kg | 자동변속기등급 ▶ 2.0T-GDI 2WD 19인치알루미늄휠)복합10.3km/ℓ(도심8.9km/ℓ, 고속도로:12.3km/ℓ) | CO2배출량161g/km | 배기량1,998cc | 공차중량1,620kg | 자동변속기등급 ▶ 2.0T-GDI AWD 19인치알루미늄휠)복합9.3km/ℓ(도심8.1km/ℓ, 고속도로:11.2km/ℓ) | CO2배출량184g/km | 배기량1,998cc | 공차중량1,685kg | 자동변속기등급 ▶ 2.0T-GDI AWD 19인치알루미늄휠)복합9.5km/ℓ(도심8.2km/ℓ, 고속도로:11.5km/ℓ) | CO2배출량180g/km | 배기량1,998cc | 공차중량1,685kg | 자동변속기등급 ▶ 3.3T-GDI AWD 19인치알루미늄휠)복합8.3km/ℓ(도심7.4km/ℓ, 고속도로:10.3km/ℓ) | CO2배출량203g/km | 배기량3,342cc | 공차중량1,796kg | 자동변속기등급 ▶ 3.3T-GDI AWD 19인치알루미늄휠)복합8.8km/ℓ(도심7.7km/ℓ, 고속도로:10.8km/ℓ) | CO2배출량193g/km | 배기량3,342cc | 공차중량1,796kg | 자동변속기등급 ▶ 3.3T-GDI 2WD 19인치알루미늄휠)복합9.4km/ℓ(도심8.3km/ℓ, 고속도로:11.3km/ℓ) | CO2배출량182g/km | 배기량3,342cc | 공차중량1,770kg | 자동변속기등급 ▶ 2.2D 2WD 17인치알루민늄)복합14.7km/ℓ(도심13.0km/ℓ, 고속도로17.3km/ℓ) | CO2배출량126g/km | 배기량2,199cc | 공차중량1,710kg | 자동변속기등급 ▶ 2.2D 2WD 17인치타이어) 복합14.1km/ℓ(도심12.3km/ℓ, 고속도로17.4km/ℓ) | CO2배출량132g/km | 배기량2,199cc | 공차중량 1,710kg | 자동변속기등급 ▶ 2.2D 2WD 18인치타이어) 복합13.3km/ℓ(도심11.7km/ℓ, 고속도로15.6km/ℓ) | CO2배출량139g/km | 배기량2,199cc | 공차중량1,739kg | 자동변속기등급 ▶ 2.2D AWD 18인치타이어) 복합13.3km/ℓ(도심11.8km/ℓ, 고속도로15.5km/ℓ) | CO2배출량144g/km | 배기량2,199cc | 공차중량1,779kg | 자동변속기등급 ▶ 3.3D AWD 18인치타이어) 복합11.8km/ℓ(도심10.7km/ℓ, 고속도로:13.2km/ℓ) | CO2배출량154g/km | 배기량2,993cc | 공차중량1,800kg | 자동변속기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옵션, 정비상태,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금융정보, 감가율 및 금액등을 비치 합니다 ※ 정속주행을 합시다 ■ 제네시스는자동차,레저용의류라는스타일을 통해서만 판매하며, 현재의는 공예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비롯 거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2020.11.4 (수)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슈만
유모레스크 Op. 20

작품에서 웃음이나 즐거움의 정서를 찾으려고 하는 감상자의 의지는 자유지만, 슈만이 지닌 '유머감각'이 우리의 예상을 많이 뛰어넘는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작품이 장대한 구성의 유모레스크다. 멈추지 않는 다섯 부분과 종결부의 진행을 듣노라면 작품의 무게가 듣는 이를 교묘하게 누르는 듯하며 동시에 강한 센티멘탈이 와닿기도 한다. 슈만이 몸에 익히고 있었던 독일적 지성과 심미안이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 1839년에 완성된 이 곡은 자유로운 의식의 흐름으로 불규칙하게 등장하는 영감의 표출을 모나지 않게 '다스리고' 있다는 면에서도 최고의 걸작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다. 예나 지금이나 작품명으로 꽤 인기가 있는 유모레스크의 'Humor'는 본래 고대 생리학에서 몸속을 흐르는 네 종류의 체액을 설명할 때 쓰이던 말이다. 땀, 눈물, 피는 분명 액체이며, 형태가 없이 자유로운 이 액체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연결시킨다. 아치 형의 론도 형식을 띠고 있는 1부는 티 없이 맑은 정서로 시작해 점차 빠른 율동감을 더해가다 처음의 요소로 돌아간다. 내성이 강조된 대위 기법과 자유로운 템포 조절, 장조와 단조를 오가는 코랄 풍의 진행 등이 느슨한 소나타 형식으로 나타나는 곡이 2부를 형성하며, 3부는 감상적인 악상과 명랑함이 교차되는 3부 형식이다. '친밀하게'라는 지시어가 인상적인 4부는 첫 머리의 요소가 세 번 나타나며 3부의 첫 머리를 회상하게 만드는 구석도 있다. 5부는 '매우 활발하게'로 시작하며, 강한 팡파레 풍의 다음 파트는 '약간 화려하게'라는 지시어로 색다른 율동감을 통해 대곡의 실질적인 마무리를 하고 있다. 마지막 곡은 '결론을 내리듯'이라는 슈만의 지시가 있으며, 발을 끄는 듯한 모티브 진행이 전곡을 회상하는 모습을 보이다 알레그로로 힘찬 종결을 한다.

시마노프스키
마스크 Op. 34

20세기 초 폴란드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으며, 국제적으로도 깊은 영향력을 지닌 작품을 여럿 발표했다고 해서, 카롤 시마노프스키를 폴란드의 정신을 민족 음악으로 고취시킨 쇼팽의 직계 후예라는 '부담스러운' 위치에 올려놓을 필요는 없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서야 정부가 수립된 폴란드의 비극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크라이나 티모쇼프카에서 태어난 시마노프스키의 생애의 전반이 많은 여행으로 채워진 것은 결과적으로 그의 음악혼을 일깨워주었다. 북미 지역은 물론이고 지중해를 거쳐 무슬림 지역까지 섭렵한 후 받은 문화적 자극은 시마노프스키의 작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피아노를 위한 세 개의 시'라는 부제가 붙은 '마스크'는 1915년에서 이듬해에 걸쳐 만들어졌으며, 비슷한 분위기의 전작 '메토프'보다 은유적이고 현학적인 표현이 두드러진다. 조국의 독립이 이루어지기 직전 작품들의 특징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이 소품들은 도발적인 화성과 적나라한 무조, 변덕스러운 리듬과 예측 불허의 뉘앙스가 전면에 나타난다. 어딘지 비틀어진 무곡의 편린과 해학, 작품 전반을 꿰뚫는 비극적 정서와 신비감은 스크랴빈, 스트라빈스키를 연상시키며, 남유럽의 분위기와 유희적인 음향은 드뷔시의 전주곡집,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 등을 떠올리게도 한다. 1곡 '셰헤라자드'는 그로테스크한 음향과 곳곳에 숨어있는 싱코페이션을 통해 이야기의 화자인 셰헤라자드가 무희임을 비유하며, 아치 형의 구조 중간부의 꿈꾸는 듯한 분위기에서는 전작인 '메토프'의 마지막 곡 '나우시카'의 그림자가 살짝 비친다. 2곡 '광대 탄트리스'는 에른스트 하르트의 동명의 연극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광대로 변한 트리스탄의 이야기다. 여기에서 트리스탄은

마르크 왕에게서 이졸데를 빼앗아 올 수 있다는 망상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피아노의 우스꽝스러운 리듬과 충동적인 악센트들이 그 무모함을 비웃고 슬픔을 다독인다. 3곡 '돈 쥬앙의 세레나데'는 드뷔시와 라벨을 거친 스페인적 요소들이 다시 동유럽의 필터를 거쳐 나타나는 흥미로운 캐리커처다. 절뚝이는 셋잇단음표는 분명 라틴의 노래와 춤이고, 달콤한 감상을 파괴하는 불규칙한 프레이징과 타악기적 음향은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셰헤라자드의 머릿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리스트
피아노 소나타 b단조 S. 178

형식과 내용의 결합. 종교와 세속의 충돌. 텍스트와 음향이 한자리에서 멋지게 융합되는 리스트의 최대의 문제작인 소나타 b단조는 이제껏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도전했고 흥미로운 결과물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다.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 요지경 같은 매력에 놀라게 되는 이 거대한 피아노곡은 구성 면에서 연주자와 분석가마다 상이한 의견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독특한 작품이기도 하다. 여러 에피소드를 재료로 느슨하게 짜여진 소나타 형식으로 보는 의견과, 각 악장들이 연결된 4악장의 구성으로 보는 견해가 그것들이다. 구조적 측면에서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과 슈만의 교향곡 d단조 등으로부터의 영향도 느껴지는 이 작품의 주제 전개 방식은, 리스트의 작품 가운데 한때 '무형식'이라고 비판받던 자유로운 구성의 교향시들의 방법과 유사하다.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은 모티브들이 모두 상반된 성격의 상징성을 지닌다는 것, 그리고 뚜렷한 표제성은 없지만 리스트의 유일한 이 소나타가 희대의 비르투오소였으며 신을 두려워하는 종교인이자 매력적인 인간성을 지녔던 리스트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곡은 자유로운 구성의 소나타 형식으로 볼 수 있으며, 마지막 재현부 직전 나타나는 푸가토로 이루어져 있다. 렌토 아사이의 서주에 등장하는 모티브와 알레그로 에네르지코로 바뀌어 등장하는 두 개의 모티브, 그란디오소의 지시어로 등장하는 D장조의 2주제 등을 소재로 해 자유로운 구성을 취하며 발전해 간다. 리스트 특유의 비르투오시티와 즉흥적 패시지, 레치타티브적 서사 등은 적절히 등장해 연주자의 호흡과 청자의 의식을 흥미진진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재현부 직전 등장하는 푸가토와 클라이맥스의 옥타브 패시지들, 카톨릭 신자였던 리스트의 간절한 기도가 느껴지는 종결부가 감상의 포인트다.

글 | 김주영 (피아니스트)

CREDIA

© Christoph Köstlin / DG

CREDIA

피아니스트 조성진

압도적인 재능과 타고난 음악성을 겸비한 조성진은 빠르게 국제적인 수준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으며 같은 세대의 연주자들 중 단연 두각을 나타내는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이지적이면서도 시적이고, 확신에 차 있으면서도 감미롭고, 기교가 넘치면서도 색채감이 가득한 그의 연주에는 귀족적인 고고함과 순수성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데, 그의 타고난 균형감각이 어느 정도인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조성진은 2015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에 입상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현재 세계 최정상급의 아티스트들로 인정받는 마르타 아르헤리치, 마우리치오 폴리니, 크리스티안 지메르만 같은 연주자들이 바로 이 콩쿠르에서 그들의 커리어를 시작했다.

조성진은 지난 2016년 1월,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지아난드레아 노세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과 쇼팽의 <4개의 발라드>를 연주한 도이치 그라모폰과의 첫 녹음은 2016년 11월에 발매되었다. 이후 2017년 12월에 드뷔시 독주곡을 담은 앨범이 발매되었으며, 2018년에는 야닉 네제 세겡이 지휘하는 유럽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피아노 소나타와 <피아노 협주곡 20번 라단조>가 포함된 모차르트 작품집을 녹음하여 11월 발매하였다. 2020년 5월에는 네 번째 음반 <방랑자>가 발매되기도 하였다.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성진은 세계 곳곳의 명망 높은 공연장들을 누비고 있다. 카네기홀 키보드 비르투오소 시리즈의 일환으로 카네기홀 메인 무대에 섰으며, 암스테르담의 콘세르트허바우에서는 마스터 피아니스트 시리즈로 무대에 올랐다. 베를린 필하모닉 콘서트 시리즈를 통하여 베를린 필하모니 실내악홀에서 연주하였고, 비엔나 콘체르트하우스, 산토리 홀, 로스앤젤레스 월트 디즈니홀, 뮌헨 프린츠레겐텐극장, 슈투트가르트 리더할레 홀, 라 로크 당테롱 페스티벌, 베르비에 페스티벌, 그슈타트 메뉴인 페스티벌, 라인가우 페스티벌과 같은 여러 공연장에서 연주하였다.

최근 공연과 앞으로 예정된 오케스트라 공연으로는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파비오 루이지가 지휘하는 라 스칼라 필하모닉, 발레리 게르기예프 지휘의 뮌헨 필하모닉, 구스타보 히메노 지휘의 룩셈부르크 필하모닉,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한누 린투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만프레드 호넥이 지휘하는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야쿠프 흐루샤 지휘의 말러 체임버 오케스트라, 얍 판 츠베덴이 지휘하는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이 있다.

1994년 서울에서 태어난 조성진은 6세 때 피아노를 시작했으며 11세 때 첫 공개 연주회를 가졌다. 2009년에는 일본 하마마츠에서 열린 하마마츠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대회 최연소로 우승했으며 2011년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17세의 나이로 3위에 입상했다. 2012년에는 파리 국립 고등음악원으로 유학, 피아니스트 미셸 베로프와 함께 공부한 후 2015년 졸업하였다. 조성진은 현재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다.

CREMA

Seong-Jin Cho, Pianist

With an overwhelming talent and innate musicality, Seong-Jin Cho has made his mark as one of the consummate talents of his generation and most distinctive artists on the current music scene. His thoughtful and poetic, assertive and tender, virtuosic and colourful playing can combine panache with purity and is driven by an impressive natural sense of balance.

Seong-Jin Cho was brought to the world's attention in 2015 when he won the First Prize at the Chopin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Warsaw. In January 2016, he signed an exclusive contract with Deutsche Grammophon. The first recording was released in November 2016 featuring Chopin's Piano Concerto No. 1 with the London Symphony Orchestra and Gianandrea Noseda as well as the Four Ballades. A solo Debussy recital was released in November 2017, followed in 2018 by a Mozart album featuring Sonatas K281 and K332 and the Piano Concerto No. 20 in D minor K466 with the Chamber Orchestra of Europe and Yannick Nézet-Séguin. All albums won impressive critical acclaim worldwide. Cho's latest release on the Yellow Label, titled The Wanderer and released in May 2020, features Schubert's "Wanderer" Fantasy, Berg's Piano Sonata Op. 1 and Liszt's Piano Sonata in B minor.

Highlights of Seong-Jin Cho's 2020/21 season include returns to orchestras such as the Berliner Philharmoniker with Ivan Fischer, Filarmonica della Scala with Fabio Luisi and debuts with the Münchner Philharmoniker and Valery Gergiev. A highly sought-after touring soloist, Cho embarks on several international tours, including those with the Orchestre Philharmonique de Luxembourg and Gustavo Gimeno and the Budapest Festival Orchestra with Ivan Fischer. Recent and upcoming orchestral highlights include performances with the Los Angeles Philharmonic and Gustavo Dudamel, Boston Symphony Orchestra with Hannu Lintu, Pittsburgh Symphony Orchestra with Manfred Honeck, Mahler Chamber Orchestra with Jakub Hrůša and the Hong Kong Philharmonic Orchestra with Jaap Van Zweden.

An active recitalist very much in demand, Seong-Jin Cho performs in many of the world's most prestigious concert halls including the main stage of Carnegie Hall as part of the Keyboard Virtuoso series, Concertgebouw Amsterdam in the Master Pianists series, Berliner Philharmonie Kammermusiksaal (Berliner Philharmoniker concert series), Konzerthaus Vienna, Suntory Hall Tokyo, Walt Disney Hall Los Angeles, Prinzregententheater Munich, Liederhalle Stuttgart, Festival International de piano de la Roque d'Anthéron, Verbier Festival, Gstaad Menuhin Festival and Rheingau Musik Festival. During the coming season he will give debut solo recitals at the Alte Oper Frankfurt, Théâtre des Champs-Élysées Paris, Celebrity Series of Boston, Victoria Hall Geneva and Wigmore Hall.

Born in 1994 in Seoul, Seong-Jin Cho started learning the piano at the age of six and gave his first public recital aged 11. In 2009, he became the youngest-ever winner of Japan's Hamamatsu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In 2011, he won Third Prize at the International Tchaikovsky Competition in Moscow at the age of 17. From 2012-2015 he studied with Michel Béroff at the Conservatoire National Supérieur de Musique de Paris and is now based in Berlin.

CREDIA

© Holger Hage / DG

Chopin | 2016 Piano Concerto No.1 / Ballades

'그 어떤 것도 쇼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전부 음악이었다.' - The Guardian
'시적이고 사색적이며 우아한 그 모든 것' - Financial Times

쇼팽 콩쿠르 피날레를 장식하고 조성진에게 우승을 안겨주었던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의 정식 스튜디오 녹음이 담긴 앨범

지아난드레아 노세다와 함께한 쇼팽 피아노 협주곡 외에도 발라드 전곡, 녹턴 20번 수록!

Debussy | 2017

'장엄함과 민첩함, 그리고 열정이 더해진 특별한 조합의 드뷔시를 보여주었다.' - The Telegraph
'지나침이나 과시적임 없이, 냇물처럼 맑고 반짝이는 손가락 움직임과 시의 훌륭한 조합' - Financial Times

드뷔시 사후 100주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념한 앨범

어릴 적부터 좋아한 프랑스 작곡가 드뷔시의 음악 수록 / '달빛', '영상 1, 2집'과 '어린이 차지'

Mozart | 2018 Piano Concerto No.20 K.466 / Sonatas K.281 & 332

'조성진은 자연스러우면서도 무게감 있는 진정한 '모차르트형 인간'임을 증명했다.' - The Times
'모차르트를 연주할 때면 항상 행복합니다' - 조성진

야닉 네제 세겡이 지휘하는 유럽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 수록

Mozart | 2019 Rondo in A Minor, K. 511 / e-single

'모차르트의 작품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멜랑콜리한 느낌이 신선했습니다' - 조성진

'론도 K. 511'는 단조와 장조를 넘나드는,
모차르트 피아노 솔로 중에서도 손꼽히는 작품

The Wanderer | 2020

유럽의 대표적인 콘서트 피아니스트로 우뚝 선 조성진의 신보

처음으로 한 작곡가가 아닌 슈베르트-베르크-리스트를 묶어
조성진의 깊어진 음악적 세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음반

슈베르트 방랑자 환상곡 / 베르크 소나타 Op. 1 / 리스트 소나타 S. 178 수록

Deutsche Grammophon
"저를 매혹시키는 것은 아주 적은 재료만 가지고
이런 걸작품을 빚어내는 작곡가들의 솜씨입니다.
단 하나의 주제로 곡 전체의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은
정말 경이롭죠. 그 창의력과 상상력!"
- 조성진
조성진
The Wanderer
조성진의 도이치 그라모폰 네 번째 스튜디오 레코딩
[슈베르트 방랑자 환상곡 & 베르크·리스트 피아노 소나타]
SEONG-JIN CHO
THE WANDERER
SCHUBERT · BERG · LISZT
DG40252/3
universalmusickoreaclassics
universalmusicclassickorea
UNIVERSAL
UNIVERSAL MUSIC GROUP
CREDIA

조성진의 현재는 여기에

조성진이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것이 벌써 5년 전이다. 세계 음악 시장에 조성진이라는 이름을 알린 이후 그가 알려온 행보는 모든 것이 새로 쓰는 역사였다. 한국인 최초로 도이치 그라모폰과 독점 계약을 맺었고, 발매하는 음반마다 멀티 플래티넘 판매를 기록했다. 카네기홀 초청 공연을 비롯해 세계 유수의 극장, 오케스트라의 러브콜을 받는 연주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설처럼 존경받는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치메르만, 알프레트 브렌델이 아끼고 사랑하는 젊은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코로나19로 세계 음악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에도 베를린 필하모닉 재초청 공연, 뉴욕 필하모닉 정기 연주회 데뷔, 시카고 심포니 피아노 시리즈, 위그모어홀 120주년 시즌 무대에도 이름을 올리며 이 시대 최고의 연주자임을 증명해왔다.

지난해 싱가포르와 통영에서 가진 특별한 무대를 비롯해 올해 5월에 발매한 음반 <방랑자>를 통해 리사이틀 레퍼토리를 살펴보면 그가 음악적으로 얼마나 넓은 영역에 도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클럽발코니 인터뷰를 통해 현존 작곡가의 작품에도 관심을 보였는데, 이번 리사이틀 프로그램이 흥미롭다. 두 가지 타입의 구성으로 프로그램 Ⅰ은 슈만의 '유모레스크' Op.20, 시마노프스키의 '마스크' Op.34, 슈만의 '숲의 정경' Op.82,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 C장조 D760이고, 프로그램 Ⅱ는 1부에서 슈만과 시마노프스키를, 2부에서 리스트 피아노 소나타 b단조를 연주한다.

조성진이 말하는 시마노프스키 '마스크'의 매력

그는 왜 시마노프스키를 선택했을까? 카롤 시마노프스키는 조성진의 멘토인 크리스티안 치메르만이 애정을 가져온 폴란드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다. 치메르만은 2003년 내한했을 당시에 앙코르 곡으로 시마노프스키를 연주했다.

"시마노프스키는 베토벤처럼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작곡가는 아니지만 전혀 생소한 인물도 아니죠. 야나체크의 소나타나 프랑크의 프렐류드, 코랄과 푸가, 아니면 베르크 소나타 같은, 좋은 곡을 썼지만 덜 연주되는 작곡가의 작품을 연주하길 좋아해요. 시마노프스키의 '마스크'는 유럽 무대에서도 자주 연주하지 않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클래식 레퍼토리 중에는 베토벤뿐만 아니라 이런 좋은 곡들이 많다는 걸 알리고 싶어요."

'마스크' Op.34는 셰에라자드, 탄트리스의 광대, 돈 주앙 세레나데 등 세 곡으로 구성된 모음곡이다. 작품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조성진의 표현을 빌자면 대단히 '센슈얼(sensual)'한 작품이다. 시마노프스키는 폴란드의 드뷔시라고 불릴 만큼 인상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음색은 컬러풀하지만 드뷔시보다 훨씬 드라마틱해요. 테크닉도 어렵고 악보도 음표가 많아서 치기 쉽지 않죠. 한번 들으면 못 잊을 것 같은 귀에 꽂히는 멜로디는 없지만, 듣다 보면 계속 생각나는 음악이에요."

또 다른 레퍼토리 중에는 지난 앨범에도 수록되었고, 2018년부터 무대에 올린 슈베르트 '방랑자' 환상곡과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 b단조도 눈에 띈다. 특히 공들이고 기간을 두며 숙성시키고 있는 '방랑자' 환상곡에 대한 애정도 궁금했다.

"처음 쳤을 때보다 곡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올해 6월, 스위스 솔스베르크 페스티벌(Solsberg Festival)에서도 연주했는데, 여전히 계속 어려워요. 솔직히 리스트 소나타보다 어려워요. 슈베르트가 이 곡은 연주가 가능할지 안 할지 생각 많이 안 하고 작곡한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웃음)."

슈만의 작품도 두 곡 넣었다. 특히 '숲의 정경' Op.82는 '방랑자' 환상곡 전에 연주할 계획이라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궁금했다.

"숲의 정경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어린이 정경'보다 더 좋았죠. 슈만 음악의 특징은, 곡은 분명 장조인데 슬픈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마지막 곡 'Abschied(이별)'도 분명 모든 부분이 장조인데, 연주해본 곡 중 다섯 손가락에 드는 슬픈 곡이죠."

남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아티스트는 늘 현재 진행형이다. 이 젊은 연주자의 음악이 좋은 이유도, 주어진 영광에 취하고 안주하기보다 자꾸만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새로운 문을 열어젖히고 주저함 없이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간 익숙해 있던 슈베르트도, 쇼팽도 조성진에 의해 다른 음악으로 듣게 됐다. 당차지만 깊이를 다져가는 그의 무대가 늘 신비롭고, 기대감을 갖게 되는 이유다.

글 | 이지영 (음악 칼럼니스트)

클럽발코니 2020년 10월호 발췌

슈베르트, 베르크, 리스트까지 레퍼토리가 정교합니다. 모두 직접 선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구성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나 이유를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세 곡은 공통점이 있는 게 소나타 형식의 곡인데 악장마다 연결이 되어있는, 악장마다 쉬지 않고, 그래서 한 악장 소나타처럼 들리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리스트 소나타도 마찬가지고, 베르크 소나타는 한 악장의 곡이긴 하지만 몇 개의 주제를 가지고 한 곡을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랑자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슈베르트 방랑자 2악장 때문인데, 그게 방랑자 가곡의 주제를 따와서 '방랑자'가 됐어요. 방랑이라는 게 낭만주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던 거 같아요. 특히 슈베르트한테는. 물론 리스트도 낭만 시대의 작곡가였고 그 사람의 삶도 (물론 말년에는 한곳에 머물렀지만) 여기저기서 살았고 여행도 많이 다녔었습니다. 항상 예술가, 보통 피아니스트나 뮤지션이 방랑까지는 아니지만,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이 이 시대 뮤지션과도 공통점이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작년 6월에 베를린에서 슈베르트와 베르크를 녹음을 했었고 작년 10월에 함부르크에서 리스트 소나타를 녹음을 했어요. 리스트 소나타는 사실 30분짜리 곡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치는 게 너무 어려운 곡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녹음했어요. (부분, 부분 나누지 않고 한 번에 하는 게) 더 흐름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최대한 라이브처럼 들리게 녹음을 하려고 했어요.

녹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곡, 그리고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이 있다면요?

저는 항상 녹음이 연주보다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록으로 남는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요. (항상 잊어버리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리스트 소나타가 가장 어려웠던 곡이었던 거 같아요. 긴 곡이고, 스케일도 크고, 피아노 레파토리에서 가장 어려운 곡 중 하나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리스트 같은 경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쳤고, 처음 무대에 오른 게 2011년이었어요. 그때부터 3년에 한 번씩은 무대에 올랐어요. 그럴 때마다 저의 해석이 바뀌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 저의 음악적인 관점, 시각도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지난 쇼팽 녹음에선 수많은 테이크를 녹음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이어진 것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녹음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한 번에? 아니면 계속해서 다시 했나요? 녹음 과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슈베르트 방랑자 환상곡을 6월 베를린에서 녹음을 했을 때 녹음을 다 마치고 관객을 20~30명 불러서 연주회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쳤었거든요. (그게 방랑자 환상곡 뮤직비디오의 장면인데) 사실은 그 테이크를 썼어요. 녹음을 다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다 들어보니까 관객들 앞에서 친 그 테이크가 가장 저한테는 괜찮게 들려서, 그 테이크를 베이스로 썼습니다.

베르크 소나타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테이크를 썼어요. 리스트 소나타는 그때는 관객이 없어서 프로듀서 2~3명을 내려오라고 해서 그 앞에서 연주를 했어요. 리스트도 이 테이크를 썼어요. 참고로 리스트는 이게 마지막 테이크는 아니지만요.

'방랑자' 환상곡은 슈베르트 자신도 "너무 어려워 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테크닉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를 익히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요? 이 곡을 조성진만의 연주로 표현하기 위해 감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어떤 점에 주안을 뒀는지 궁금합니다.

이 곡은 테크닉이 어려운 걸 감추는 게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사람들이 이 곡을 들으면서 이 곡이 어렵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 곡이 아름답구나, 드라마틱하구나, 서정적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연주한 슈베르트 곡 중에서는 가장 기술적으로 어려운 곡이라는 점은 사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표내지 않으며 음악이 먼저 들리게 하려면 일단 테크닉적으로 편해야 하는 거 같아요. 제가 2018년 말부터 이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는데 무대에 오르면 오를수록 더 편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곡은 상상력이 많이 가미된 곡인데, 악장마다 캐릭터도 달라서 그런 것을 잘 표현하려고 했어요.

CREDIA

(주) 코스모스악기
스타인웨이 피아노 갤러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7 (주)코스모스악기 3층 TEL (02)522-8844
자세한 정보는 STEINWAYSPIRIO.COM 를 방문하세요.

STEINWAY & SONS

코로나19로 침체된 공연예술계를 응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소중한 일상 소중한 문화 티켓

8개 주요 예매처에서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국악 공연 티켓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최대 3만 2천원 할인쿠폰을 드립니다

안전한 공연 관람 약속하고, 소중한 일상, 소중한 문화티켓 받아 가세요

NAVER 예매 Melon 티켓 AUCTION. SK 플래닛 티켓링크 YES24 티켓 인터파크 하나티켓

SEONG-JIN CHO PIANO RECITAL

CREDIA

CREDIA MUSIC & ARTISTS | CREDIA INTERNATIONAL | CREDIA ENTERTAINMENT | CREDIA STAR UP

이 프로그램은 Club **BALCONY** 유료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www.clubbalcony.com에서 공연을 예매한 유료회원에 한함)

www.credia.co.kr

CREDIA
MUSIC&ARTISTS

CREDIA Music & Artists 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 Music & Artists 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 Music & Artists 에서 받을 수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크레디아 페이지(www.credia.co.kr)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REDIA Music & Artists
www.credia.co.kr